

#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12월

## ( 일본정부의 경제운용과 경제전망 )

###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2
1. 경기회복 국면 진입 .....	2
2. 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6
3. 엔저가속·주가급등 .....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	12
1. 일본정부의 경제운용과 경제전망 .....	12
2. 미·일 금리차 확대와 엔저.....	14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7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반전 .....	17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19
V. 참고 자료 .....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	21
2. 주요 경제 일정 .....	23

##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2.5	113.9	-
GDP증가율(연율,%)	△0.0	0.5	0.8	△1.8	2.8	1.8	1.3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17.9	17.2	20.1	15.8	19.9p)	-	-
	공공투자	24.5	23.4	5.0	6.1	6.5	4.3	6.1p)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7.6	21.8	19.6	12.7	18.6	8.0	5.4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0	0.1	△0.2	△0.1	0.0	0.2	-
상승률(%)	전년동기비	2.6	0.5	△0.1	0.0	△0.1	△0.4	△0.5	△0.4	-
실업률(%)		3.6	-3.4	3.4	3.2	3.2	3.0	3.0	3.0	-
수출(조엔)		73.1	75.6	19.0	18.8	17.5	17.0	17.0	6.0	5.9
수입(조엔)		85.9	78.5	20.0	19.0	17.2	15.5	16.0	5.5	5.4
무역수지(조엔)		△12.8	△2.9	△1.0	△0.2	△0.3	1.5	1.0	0.5	0.5
경상수지(조엔)		3.9	16.4	5.0	3.6	5.9	4.6	5.7	1.8	1.7
환율	달러	105.8	121.1	122.3	121.5	115.3	108.1	102.4	102.0	103.8
	원화(100엔)	996	935	957	953	1,043	1,076	1,095	1,087	1,084
금리(10년물,%)		0.55	0.36	0.40	0.31	0.051	-0.121	-0.128	-0.048	-0.060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9,474	19,035	16,843	16,393	16,500	16,737	17,045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 (경기판단) 경기회복국면 진입

- '16.10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3.9로 전월비 1.4p 상승

###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

- '16.10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1,525억 엔 흑자

- '16.11월 수출은 5조 9,565억 엔, 수입은 5조 8,040억 엔

### ☐ (환율) 엔저 가속

- '16.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8.2 엔으로 전월비 4.2% 엔저

\* '16.11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74원으로 전월비 0.9% 엔저·원고

##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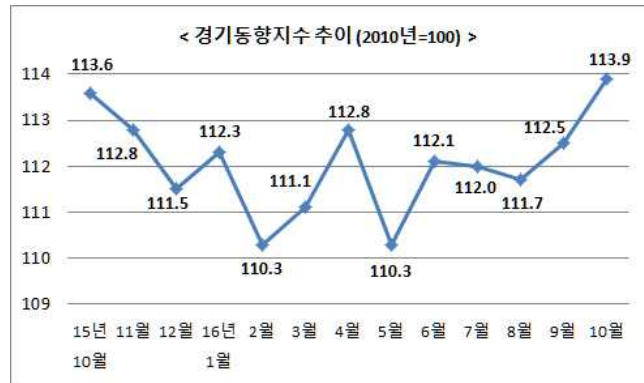
### 1. 경기회복 국면 진입

#### □ (경기기조 판단)

##### ○ 일본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

- 세계적인 IT사이클의 개선을 배경으로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데다, 고용·소득이 견조를 보임에 따라 개인 소비도 회복되고 있음

#####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0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년=100)는 113.9로 전월비 1.4p 상승



자료 : 내각부

- 생산 및 소매액 증가와 유효구인배수의 상승이, 경기동향지수 상승의 주된 요인
- 일본 내각부의 경기기조판단은 1년 6개월 만에 이전까지의 담보상태에서 개선으로 전환

#### □ (전 망)

##### ○ 앞으로 일본경제는 엔저를 배경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호조, 공공투자의 진척, 개인소비의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최근 미일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저 및 추가상승 영향으로 수출, 내수 모두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일본경제가 아직은 소득의 증가와 지출의 확대라는 선순환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율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이것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성장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음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1.0으로 전월보다 1.0p 개선

## <GDP>

- 일본 내각부가 12월 8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실질 GDP성장률(2차 속보치)은 전기비 0.3%, 연율 환산으로는 1.3%로 1차 속보치(2.2%)에 비하여 크게 하향수정
  -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하향수정의 주된 요인
- 실질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외수가 0.3%로 1차 속보치 0.5%에 비하여 하향수정, 내수도 △0.0%로 1차 속보치 0.1%에 비하여 하향수정
  - GDP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외수는 수출이 1차 속보치의 2.0% 증가에서 1.6% 증가로, 수입은 1차 속보치의 0.6% 감소에서 0.4% 감소로 하향수정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장치와 스마트폰부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철광석과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은 감소
  - 개인소비는 0.3% 증가로 1차 속보치 0.1% 증가에 비하여 상향 수정된 가운데, 휴대전화와 자동차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음료판매가 감소
- 민간설비투자는 △0.4%로 1차 속보치 0.03% 증가에 비하여 마이너스로 반전된 반면, 공공투자는 0.1% 증가로 1차 속보치 0.7% 감소에 비하여 플러스로 반전
  - 민간주택은 주택론의 금리하락에 힘입어 2분기에 이어 1차 속보치의 2.3% 증가에서 2.6% 증가로 상향수정
- 일본정부는 2016년도에도 2015년도의 1.3%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어 2017년도에는 약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나 실질 2%의 성장률 목표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

###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0.5	1.5	△0.1	0.2	△0.4	0.7	0.5	0.3
전기비연율	△0.0	0.5	2.1	6.3	△0.5	0.8	△1.8	2.8	1.8	1.3p
전년동기비			△0.4	△0.1	1.8	2.1	1.1	0.4	0.9	1.1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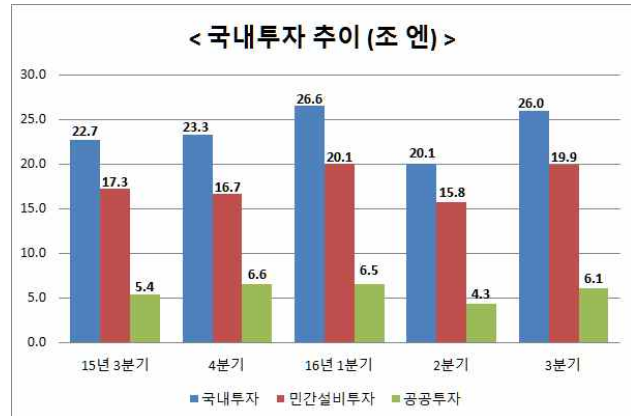
## <국내 투자>

□ '16.3분기 국내투자, GDP의 19.9%

- '16.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0.9% 증가한 26.0조 엔으로 GDP의 19.9%

### □ (민간설비투자)

- '16.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8.9% 증가한 19.9조 엔, 국내투자의 76.4%를 차지
- 실질기준으로는 엔고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기비 0.4% 감소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제조업은 6년 연속 증가, 설비투자의 과잉감은 회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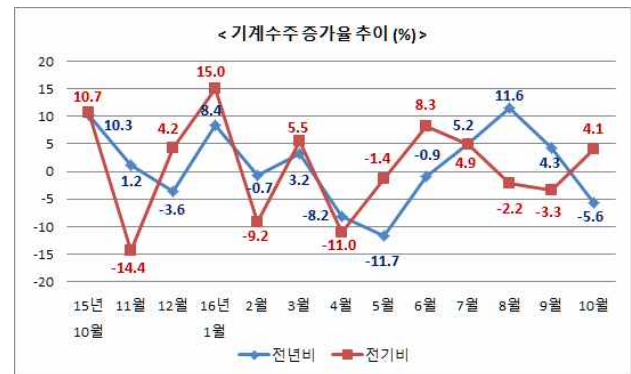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0월 기계 수주는 전월에 이어 4.1% 증가

- 일본 내각부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전월의 기초판단을 유지

### □ (공공투자)

- '16.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8.0% 증가한 6.1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6%를 차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

- 다만, 10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1.3% 감소, 1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도 전년동월비 5.7% 감소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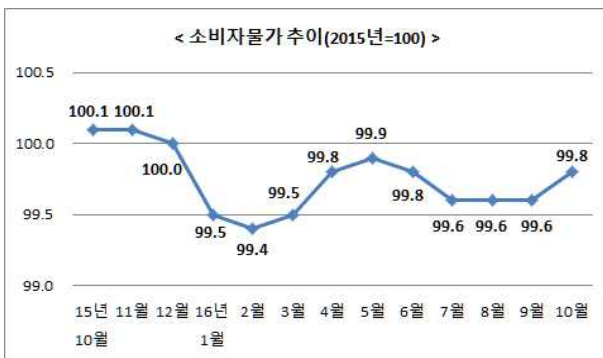
### □ '16.10월 소비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

- '16.10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년비 99.8(2015년= 100)로 전월비 상승률은 0.2%
  - 전년동월비로는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전력요금 등의 하락으로 0.4%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2%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엔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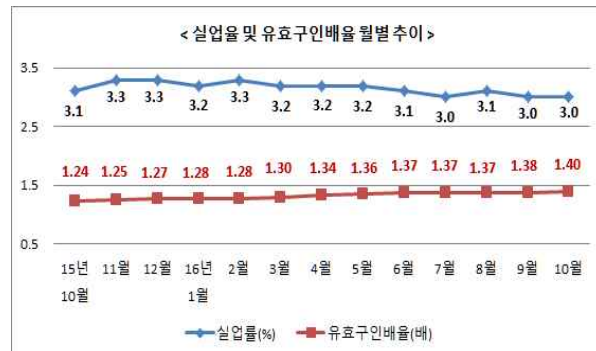
## <실업률>

###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10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0%
  - 완전실업자 수는 197만 명으로 21년 8개월 만에 200만 명을 하회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노동수급의 꺾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0.02p 상승
  - '16.10월 유효구인배율은 1.40배로 전월보다 0.02p 상승, 25년 2개월만의 최고수준
  - 교육지원업과 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구인수가 증가하고, 의료·복지업에서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이 확대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 2. 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총 합) 수출의 증가반전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 '16.11월 무역수지는 1,525억 엔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
- 수출의 증가 반전으로 흑자는 유지되었으나 흑자폭은 전월보다 줄었음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3,412억 엔에서 3,842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803억 엔에서 5,811억 엔으로 확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1,919억 엔에서 1,892억 엔으로 축소

< 2016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9	-10.3	-1.7	6.0	-0.4	1.7	63.4	-8.5
수 입	5.4	-16.5	-1.8	5.8	-8.8	0.7	60.0	-16.9
수 지	0.5	373.5	-0.4	0.2	-	-60.0	3.5	-

자료 : 재무성

### □ (수 출) '16.11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11월 수출은 전월대비 1.7% 증가한 5조 9,565억 엔
- 전월의 1.7% 감소에 비하면 수출은 호조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0.8% 증가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와 원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수출증가품목 중 원동기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10.1%로 가장 큼
- 수출감소품목 중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1.7%로 가장 큼

< 2016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942	-11.3	-2.7	10,295	-8.5	3.6	102,364	-6.4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191	-7.1	0.2	3,146	6.5	-1.4	33,035	-8.5
3	자동차부품	3,057	-0.9	0.0	3,050	10.4	-0.2	30,971	-2.3
4	철강	2,311	-19.3	1.1	2,271	-12.1	-1.7	25,809	-23.9
5	원동기	2,025	-8.1	-0.8	2,229	11.1	10.1	21,778	-8.0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EU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수출증가폭은 ASEAN에 대한 수출이 3.2%로 가장 큼
- 수출감소폭은 대만에 대한 수출이 -4.1%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2.9% 증가

< 2016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1,971	-11.2	2.5	12,112	-1.8	1.2	127,731	-7.9
2	중국	10,748	-9.2	8.2	11,032	4.4	2.6	110,605	-8.3
3	ASEAN	8,576	-12.4	-1.2	8,849	0.5	3.2	93,747	-11.3
4	EU	6,505	-9.5	-5.3	6,333	-2.2	-2.6	72,711	0.4
5	한국	4,184	-4.6	-2.3	4,305	11.9	2.9	45,145	-7.9
6	대만	3,667	-2.8	-2.6	3,517	-1.2	-4.1	38,459	-6.1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11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11월 수입도 전월비 0.7% 증가한 5조 8,040억 엔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과 엔고로 인하여 8.8%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5.9%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 통신기와 의류 및 동부속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

- 수입증가품목 중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증가폭이 24.2%로 가장 큼
- 수입감소품목 중 통신기의 수입 감소폭이 22.7%로 가장 큼

< 2016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3,989	-27.2	-12.3	<b>4,939</b>	-14.4	<b>23.8</b>	49,123	-35.3
2	액화천연가스	2,425	-32.1	-2.6	<b>3,012</b>	-20.6	<b>24.2</b>	29,606	-41.7
3	통신기	3,321	-3.2	-2.4	<b>2,567</b>	-4.7	<b>-22.7</b>	26,001	-5.0
4	의약품	2,376	-13.4	19.3	<b>2,416</b>	-28.5	<b>1.7</b>	25,375	-4.1
5	의류 및 동부속품	2,332	-26.5	-25.0	<b>2,265</b>	-15.8	<b>-2.9</b>	28,581	-9.3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모두 증가

- 호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2.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6.5% 증가

< 2016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4,160	-17.9	-8.0	<b>14,874</b>	-9.9	<b>5.0</b>	142,287	-20.4
2	ASEAN	8,271	-17.1	1.8	<b>8,606</b>	-6.3	<b>4.1</b>	83,882	-23.0
3	EU	6,749	-12.0	3.9	<b>7,170</b>	-13.3	<b>6.2</b>	67,513	-14.2
4	미국	6,168	-9.9	6.3	<b>6,301</b>	-5.1	<b>2.2</b>	60,677	-18.7
5	호주	2,877	-7.4	2.8	<b>3,232</b>	-2.8	<b>12.3</b>	26,996	-30.5
6	한국	2,265	-11.1	5.8	<b>2,413</b>	-3.4	<b>6.5</b>	22,250	-25.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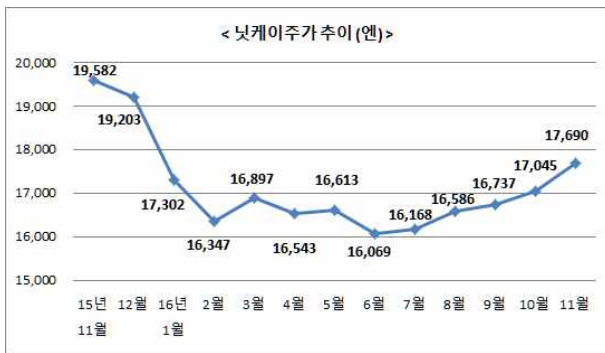
### 3.엔저가속 · 주가급등

####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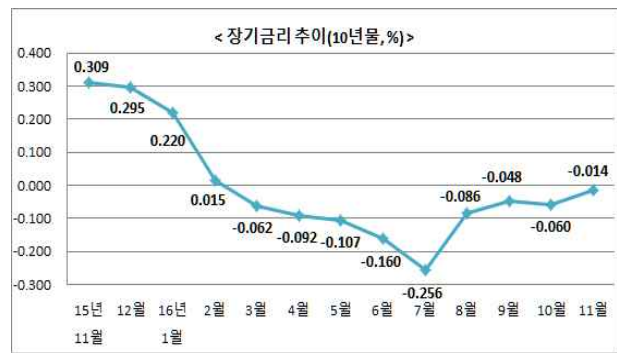
- ‘16.1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3.8% 상승한 17,690엔

#### □ (금 리)

- ‘16.1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의 -0.060%에서 -0.014%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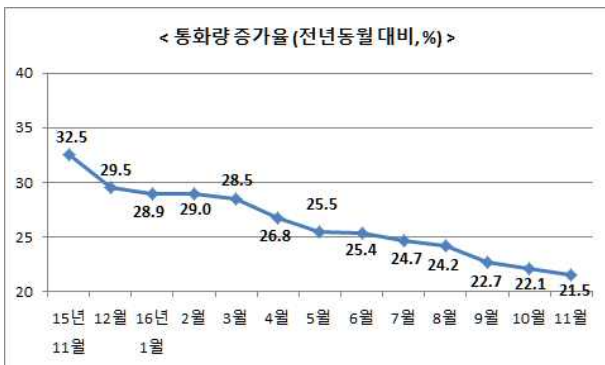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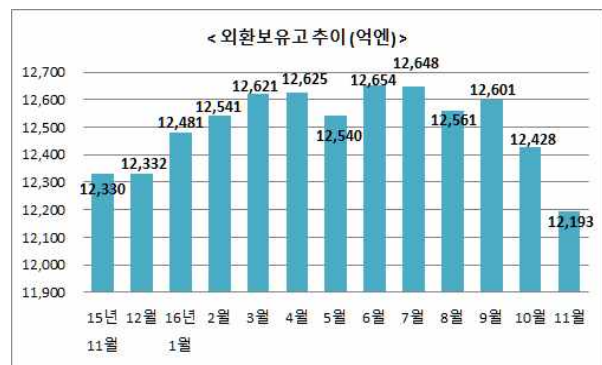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 (통화량)

- ‘16.11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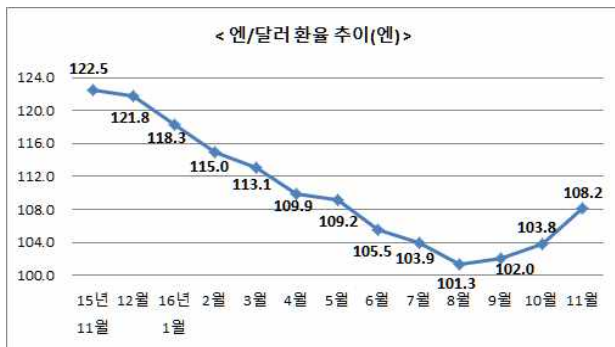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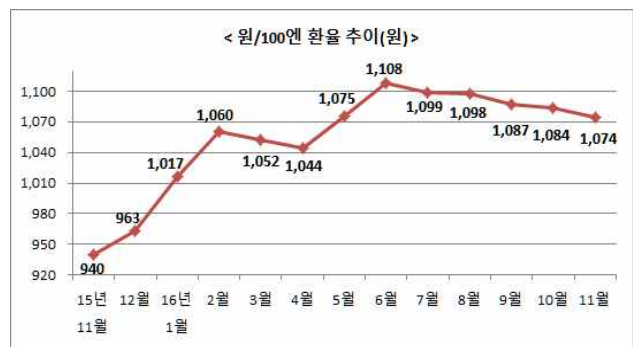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 (환 율)

- ‘16.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4.2% 상승한 108.2엔(엔저)
  - 12월 들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엔저 가속, 12월 16일 기준 달러당 118엔 대까지 엔저 진행
- 최근 엔저 가속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FOMC의 금리인상 등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미일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요인
  - 그러나 급격한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경계가 엔고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
- ‘16.1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74원으로 전월의 1,084원에 비하여 0.9%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급감이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주도
- ‘16년 10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3,869억 엔으로 전월비 32.5%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9월	10월
금 액		696,396	176,072	217,554	196,248	127,675	186,332	79,783	53,869
증가율	전기비	-11.8	19.0	23.6	-9.8	-35.0	45.9	54.4	-32.5
	전년동기비	-11.8	2.8	9.7	26.7	-13.7	5.8	28.8	-23.0
									1-10월
									564,124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월비 47.6% 감소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81.7% 감소

○ 북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29.6% 증가

- 미국에 대한 투자는 30.2%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45억 엔으로 21.9%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2분기		3분기		10월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 세계	696,396	-11.8	127,675	-35.0	186,332	45.9	53,869	-32.5	564,124
아시아	141,593	19.0	18,329	-19.8	17,298	-5.6	6,402	-1.3	66,168
중 국	14,659	1.1	3,230	1.6	2,979	-7.8	1,064	-3.0	10,573
한 국	4,714	-20.6	900	24.8	729	-19.0	245	21.9	2,794
북 미	237,283	-2.9	28,029	-65.8	31,421	12.1	13,084	29.6	156,245
미 국	230,435	-2.9	26,166	-67.7	30,391	16.1	12,787	30.2	152,084
중남미	22,758	49.4	1,844	-48.4	20,084	989.2	707	-81.7	27,692
유 럽	269,749	-30.4	72,598	-12.7	113,720	56.6	30,399	-47.6	300,664
대양주	19,126	1.2	3,190	9.8	1,743	-45.4	2,706	352.5	10,582
중 동	1,805	46.9	433	-46.9	136	-68.6	88	319.0	1,497
아프리카	6,843	7.3	2,153	75.8	1,930	-10.4	484	-33.4	5,862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III. 일본의 주요 정책

#### 1. 일본정부의 경제운용과 경제전망

##### (1) 2016년도 경제성장 전망

□ '16년도 GDP 성장률은 1.3%정도로 예상

- 2016년도(2016.4-2017.3)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다만 2016년도 전반기(2016.4-2016.9)에는 세계경제의 약세 외에, 대내적으로도 개인소비 및 민간설비투자가 소득 및 수익의 증가율에 비하여 약세를 보임
- 그러나 8월 2일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어, 2016년도 전체로는 2015년도와 같은 1.3%의 성장이 예상

##### (2) 2017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 2017년에도 2016년에 이어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명목 GDP 600조엔 달성과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목표 달성을 목표로 함
- 경제대책을 원활하고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내수를 지탱하는 동시에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연결해 나감
-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아베노믹스(새로운 3개의 화살)에 따른 정책을 실시. 특히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창생, 국토강인화, 여성의 활약도 포함, 모든 정책을 총동원함으로써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
- 미래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재흥전략2016」을 착실하게 실시하는 한편, 「희망출생율 1.8」 및 「간병이직제로」를 위한 육아·간병의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킴
-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에 포함된 「경제·재정재생계획」 및 「경제·재정재생계획개혁공정표」에 따라 세출계획을 강화
- 일본은행은 경제·물가정세에 입각하여, 2%의 물가안정목표를 실현

### (3) 2017년도 경제전망

#### □ (GDP증가율) '17년도 GDP 성장률은 1.5%까지 회복될 전망

- 경제대책의 추진 등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민간수요 중심의 경기회복이 예상
  - 일본 민간이코노미스트들의 평균 전망치는 정부전망치보다 낮은 1.1%
- GDP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1.4%p, 외수의 기여도는 0.1%p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예상
  - 내수중에서도 민간수요의 기여도가 1.0%p로 공공수요의 기여도 0.4%를 크게 상회
- 민간소비는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0.8%정도의 완만한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생산의 증가와 기업수익의 개선 등에 의해 2016년도의 2.1%보다 높은 3.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 (소비자물가) '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의한 수급 겹의 축소 등에 의해 1.1%정도 상승할 전망

#### □ (국제수지) 무역수지는 6.1 엔 흑자 경상수지는 23.6조 엔 흑자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무역수지는 수출이 6.2% 증가하고 수입이 5.9% 증가하여 '17년 흑자폭이 6.1조 엔('16년 5.6조 엔)으로 확대
  - 경상수지의 대GDP비율은 4.3%정도
  - 엔화 환율은 달러당 111.5엔으로 전망

#### □ (일본경제 리스크)

- 일본경제의 주된 리스크 요인은 ①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② 금융자본시장의 변동 영향 등

< 2016-2017년도 일본경제 전망 >

구분		2016	2017
실질GDP성장률(%)		1.3	1.5
기여도(%)	내 수	1.0	1.4
	(민간수요)	(0.7)	(1.0)
	(공공수요)	(0.3)	(0.4)
	외 수	0.3	0.1
증가율(%)	민간소비	0.7	0.8
	민간주택투자	5.4	0.1
	민간설비투자	2.1	3.4
	수 출(재 화·서비스)	0.8	3.2
	수 입(재 화·서비스)	△ 1.2	2.6
소비자물가상승율(%)		0.0	1.1
경 상 수 지(조엔)		20.2	23.6
무 역 수 지(조엔)		(5.6)	(6.1)
수출(조엔)		68.2	72.4
수입(조엔)		62.7	66.4
엔화/대미달러 환율		107.5	111.5

자료 : 일본 내각부, 「2017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 2. 미일 금리차 확대와 엔저

### □ 엔저가속 요인으로서 미·일 금리차 확대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년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과 달러화강세·엔화약세가 진행
  - 이미 트럼프의 재정확대책에 대한 기대로 미국 국채가 매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FOMC가 금리를 인상
  - FOMC의 금리인상으로 우선 크게 반응한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10년물채권금리)로서 한때 2년 3개월 만에 최고수준인 2.6%대 전반까지 상승(채권가격은 하락)
  - 이에 따라 최근 엔·달러환율의 최대변동요인인 미일 금리차(미일의 10년물 채권으로 본 금리차)는 아베노믹스 이후 최대치인 2.3%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엔에서 달러로 유입
  -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12월 16일 한때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18엔대를 기록

- JP모건체이스은행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이 미·일 간 금리차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음
- JP모건체이스은행의 시산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는 금리차가 0.1p 벌어질 때마다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1.56엔 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후에는 미일금리차가 0.1p 확대될 때마다 2.97엔 하락

## □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요인과 엔·달러 환율

- 최근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과 관련하여, 그 배경은 성장기대만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통화하락(달러화약세·엔화강세) 요인임
- 나아가 우려되고 있는 재정적자의 확대는 정부채무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감을 포함한 나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반드시 달러화강세의 요인이 되지는 않음
-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또는 장래에도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달러화 약세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미일금리차 확대 이상으로 달러화강세가 진행되는 현상은 엔·달러환율이 트럼프의 정책을 냉정하게 반영시킬 때 달러화약세·엔화강세 방향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 전망

- 엔저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 트럼프 차기대통령이 내건 대형 감세나 인프라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실현되게 되면 금리인상 압력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들 정책이 미국경제의 성장기대와 인플레이션 관측을 높여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를 상승시킴. 트럼프 차기대통령이 내건 인프라투자 등이 미국의 성장률을 높여 물가에도 상승압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장단금리 조작으로 10년물 채권금리를 제로 가까이 억제하고 있어 금리차가 벌어지기 쉬워지고 있음



-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와 주변에 의한 달러화강세 견제 발언임
  -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배려를 지렛대로 하여 선거전의 승리를 쟁취한 트럼프인 만큼, 이대로 달러강세를 용인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견해가 강함
- 시장에서는 현재의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달러당 120엔대가 다음의 심리적인 고비가 될 것이나 엔저세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앞으로 엔 달러 환율은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되는 2017년 1-2월경에 걸쳐 달러당 110엔대 이내의 엔고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그 후에는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방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해감에 따라 불투명성이 해소되고 미국경제의 성장기대가 다시 높아짐에 따라 환율은 다시 달러화강세·엔화약세 경향을 보일 것임
  - 한편 미국으로서는 달러화강세는 수출확대의 장애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환영하기 어려운 것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의 달러화약세는 인플레이션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리스크를 높임
  -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적어도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도의 달러화 강세가 허용될 것임

#### □ 엔저 → 주가상승 → 경기회복

-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전 11월 8일에 비하여 12월 16일 현재 14엔 이상 진행된 엔저는 일본의 주식시장에 순풍으로 작용, 닛케이 평균도 2,000엔 이상 상승한 19,395엔
- 이 같은 주가상승은 경기회복으로도 이어짐. 현재 고용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주가상승이 더해지면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됨
- 다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엔저·주가상승은 기대 선행의 측면이 강하여 실체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음

##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 대일 무역적자 감소 반전

#### □ (총 합)

- '16.11월 대일무역적자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 전월보다 101백만 달러 감소한 2,013백만 달러
  - 대일 수출의 호조가 대일무역적자 축소에 기여
- 11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0%에서 변함이 없는 한편,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2.1%에서 11.5%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6%에서 7.9%로 저하

< 2016년 1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105	-1.5	-2.9	2,277	12.6	8.2	22,138	-5.9
대일 수입	4,219	9.5	-0.3	4,290	28.4	1.7	42,931	1.9
무역 수지	-2,114	400	50	-2,013	695	-101	-20,793	2,165

자료 : 한국무역통계

#### □ (대일 수출)

- '16. 11월 대일 수출은 2,277백만 달러로 전월비 8.2% 증가
  - 이는 동기간중 일본의 수입증가율 0.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10월	-1.5	-2.9	-3.2	2.7	-16.5	-1.8
2016.11월	12.6	8.2	2.5	8.2	-8.8	0.7
2016.1-11월	-5.9	-	-7.0	-	-16.9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 대신에 광물성 연료가 2위로 올라서는 등 순위만 변동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수출 증가폭이 38.2%로 가장 큼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 감소폭이 -7.5%로 가장 큼

< 2016년 1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105	-1.5	-2.9	2,277	12.6	8.2	22,138	-5.9
1	철강제품	293	14.1	2.4	282	24.7	-3.8	2,834	4.3
2	광물성연료	170	-40.9	-10.0	235	-18.8	38.2	1,938	-40.1
3	전자부품	173	-4.3	-7.0	227	42.2	31.2	1,784	-14.3
4	산업용전자제품	147	-6.1	26.7	180	33.9	22.4	1,350	-34.7
5	정밀화학제품	113	-1.7	-18.7	119	-9.6	5.3	1,314	-1.2
6	수송기계	112	0.3	-13.8	117	11.1	4.5	1,286	14.9
7	석유화학제품	124	43.5	-8.8	116	39.9	-6.5	1,200	-0.2
8	금속광물	107	37.3	0.9	99	23.7	-7.5	1,053	10.0
9	농산물	88	8.5	22.2	92	14.0	4.5	862	-3.2
10	기계요소공구·금형	93	19.2	0.0	88	11.2	-5.4	996	1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대일 수입)

○ '16.11월 대일수입은 4,290백만 달러로 전월비 1.7%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6.3%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10월	9.5	-0.3	-4.8	3.1
2016.11월	28.4	1.7	9.3	6.3
2016.1~11월	1.9	-	-8.3	-

○ 대일수입은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 순위 모두 변함이 없음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수입 증가폭이 12.1%로 가장 큼
- 대일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입 감소폭이 -8.5%로 가장 큼

< 2016년 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10월			2016.11월			2016.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219	9.5	-0.3	4,290	28.4	1.7	42,931	1.9
1	전자부품	528	5.2	9.3	592	40.8	12.1	5,484	-1.3
2	철강제품	463	-4.9	-1.1	433	18.8	-6.5	4,823	-8.8
3	정밀기계	418	99.3	-14.3	421	169.0	0.7	3,454	42.2
4	정밀화학제품	366	5.7	3.1	360	15.6	-1.6	3,788	7.9
5	석유화학제품	308	-11.7	3.4	344	3.2	11.7	3,494	-20.7
6	기초산업기계	297	-7.8	3.8	298	18.3	0.3	2,879	-2.0
7	산업용전자제품	284	35.0	-0.4	260	27.7	-8.5	2,900	23.6
8	수송기계	256	42.8	7.6	259	34.0	1.2	2,396	7.9
9	플라스틱제품	216	11.3	-2.3	211	23.3	-2.3	2,184	2.7
10	산업기계	167	-18.5	-3.5	165	3.8	-1.2	1,921	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 형) '16.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감소

○ '16.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94백만달러로 전기비 63.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28.4% 감소
- 전년동기비로는 12.6% 감소
- 건수로는 전기비 20.7% 감소

○ '16.1-3분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86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5.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6.1분기		2016.2분기		2016.3분기		2106.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61 (-22.8)	161 (-65.8)	82 (34.4)	531 (229.8)	65 (-20.7)	194 (-63.5)	208 (-11.9)*	886 (-25.9)*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667 (-13.8)	4,241 (-44.5)	760 (13.9)	6,279 (48.1)	716 (-5.8)	4,495 (-28.4)	2,144 (11.4)*	15,049 (13.4)*

주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SK머티리얼즈와 일본 쇼와덴코가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 공장 안에 합작회사 SK 쇼와덴코를 설립. 초기 투자자금은 210억원 규모로 SK머티리얼즈와 쇼와덴코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2016.12.19. 아시아투데이)
- 양사는 3D 낸드시장 확대에 맞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시장에 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사업을 적극 협력하기로 함
- 반도체 세정공정용 특수소재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일본 강소기업 센트럴글래스(주)가 경기도 평택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신규 공장을 조성
- 도쿄에 본사를 둔 동사는 PDP TV용 유리 기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의료용 마취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유리, 화학 전문기업으로, 연 매출액은 약 2,354억 엔 (약 2조 5,600억 원)에 달함(2016.10.24. 파이낸셜 뉴스)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 사례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전략 필요

## V. 참고 자료

###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11월~2016.12월)

#### □ 국내 기관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상유지 및 경기판단 상향조정』 한국은행, 2016년 12월20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FcountryView.action?boardBean.brdid=132309&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ld=2215&board>
- 『일본제조업의 IoT전략』 LG경제연구원, 2016년 12월16일  
<http://www.lgeri.com/industry/electronic/article.asp?grouping=01030200&seq=592>
- 『일본 자산운용 비즈니스의 새로운 트렌드와 영향 -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한국금융연구원, 2016년 12월10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05459>
- 『일본, 트럼프 정권 수립에 발빠르게 대처』 산업연구원, 2016년 12월8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n=12&ord=0&recom=2534&pageNo=2&state=view&tab=list&idx=52949](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n=12&ord=0&recom=2534&pageNo=2&state=view&tab=list&idx=52949)
- 『[일본경제포럼] 일본 100년 장수기업의 지속성장 비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12월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837>
- 『[일본경제포럼] 중국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12월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836>
- 『[일본경제포럼] 불확실성 하에서의 2017 소비시장 변화 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12월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834&no=43835>
- 『[일본경제포럼] 2017년 한·일 경제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년 12월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835&no=43834>

## □ 일본 기관

- 『산업구조심의회 2020년 미래개척부회 2015년도보고서 The Japan Way ~』 경제산업성, 2016년 12월16일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data/20161215001.html>
- 『퀄리티 기업의 특징』 모건스탠리메니지먼트, 2016년 12월15일  
<http://www.morganstanley.com/im/ja-jp/japanese-investor/insights/flash-report/quality-traits.html>
-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서』 국제협력은행, 2016년 12월13일  
[http://www.jbic.go.jp/wp-content/uploads/press\\_ja/2016/12/52056/press\\_ja\\_20161212\\_00.pdf](http://www.jbic.go.jp/wp-content/uploads/press_ja/2016/12/52056/press_ja_20161212_00.pdf)
- 『세계와 일본의 FTA 일람』 JETRO, 2016년 12월9일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16/01/de4c8426d0f5ef97.html>
- 『미국 신정권하에서 TPP후 FTA와 일본의 선택』 아시아경제연구소, 2016년 12월9일  
<http://www.ide.go.jp/Japanese/Publish/Download/PolicyBrief/Ajiken/075.html>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어프로치: 성숙국가 일본의 생산성향상책』 노무라종합연구소, 2016년 12월6일  
<http://www.nri.com/~media/PDF/jp/opinion/teiki/chitekishisan/cs201610/cs20161002.pdf>
- 『한중일FTA 교섭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재검토』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6년 12월3일  
<http://www.iti.or.jp/kikan106/106kuno.pdf>
- 『컴팩트한 산업집적으로; 유연한 네트워크로 지탱』 NIRA종합연구개발기구, 2016년 12월1일  
<http://www.nira.or.jp/pdf/201611report.pdf>
-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코베대학경제경영연구소, 2016년 11월26일  
<http://www.rieb.kobe-u.ac.jp/academic/ra/dp/Japanese/dp2016-J08.pdf>

## 2. 주요 경제 일정

### <12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3	- 日·러 외무장관 회담(모스크바)
4	- 한중일 30인회의(시즈오카현)
7	- 일왕 공무 부담 삭감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총리관저)
8	- 2017년도 여당세제개정대강 결정
	- 2016년 3분기(7~9월) GDP 개정치 발표(내각부) * 1차 속보치(2.2%)에서 크게 하락한 1.3%
	- 큐슈전력 센다이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 10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10	- 노벨상 수상식(스웨덴) * 오오쿠마 동경공업대학 명예교수 참석(생리학·의학상 수상)
14	- 일왕 공무 부담 삭감 등에 관한 유식자 회의(총리관저)
15	- 日·러 정상 회담(야마구치현)
16	- 日·러 정상 공동기자회견(도쿄)
	- 日·러 비즈니스 대화(도쿄)
19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20일)
	- 11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1	- 12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 '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관한 IOC, 대회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에 의한 4자 협의(도쿄)
22	-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각의결정
26	- 아베 총리 하와이 방문(28일)
27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 11월 안정실업률 발표(총무성)
	- 11월 유효구인배율 발표(후생노동성)

### <2017년 1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1	- 개정 육아·간병휴업법 및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 * 대상가족 1명당 3번 한도로 총 93일까지 간병휴업의 취득이 가능 등
하순	- 아베 총리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방문
	- 국회소집
월내	- H EU FTA 협상